

生產擴張의 時急한

韓國의 電子工業

콜럼비아大學校電子工學主任教授

工學博士 金 玩 熙

지난 數年間의 大量의 苦生과 努力으로 말미암아 韓國電子工業은 이제야 國際的 脚光을 받게 되었으며, 海外(특히 美國)로부터의 注文이 急增하여 國內 生產業體들은 이를 拒絕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現況이다.

이 現象은 여러 가지의 原因에서 오는 것이지만 가장 重要한 理由는

1. 國內電子工業 生產技術이 그 동안 大量의 進步를 거두어 지금은 外國에 輸出할 만한(勿論, 아직도 少數種類에 局限되어 있지만) 製品을 生產할 수 있는 能力を 갖게된 것.
2. 國際情勢의 變遷과 日本의 勞動下足과 賃金의 高騰으로 인하여廉價인 家庭用電子製品의 供給源을 海外(美國 및 日本)業體들이 찾고 있으며, 韓國을廉價製品 供給源으로 삼아보자는 意圖에 있는 것이다.

즉 現在의 좋은 盛況은 어디까지나 臨時的이고 試驗的인 것이며 次後 2~3年内로 完全히 決定이 난다고 본다. 國內電子生産體制가 量의이나 質의으로 海外注文를 消化시키지 못하면 他國에 供給源을 찾게 될 것이다. 따라서 現在 生產할 수 있는 能力を 가지고 있는 分野(즉 라디오, TV, 카세트 및 製品들)의 生產施設의 擴張이 至急하고 同時に 生產技術 向上으로 他種目을 生產할 수 있도록 政府의 支援과 業體들의 努力이 必要하다.

1. 急速히 늘어나는 今年度의 美國電子市場

지난 2年間의 不景氣를 急速히 克服하여 가며 새로운 景氣浮揚의 힘을 美國消費經濟는 뻗어가고 있다. 예로써 家庭用電子製品 특히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輸入狀態를 살펴보면 今年 最初 3個月間(즉 1972年 1月 2月~3月)에 輸入하여 온 칼라 TV의 臺數는 去年同期間(1971年 1~3月間)에 비하여 77.9%의 增加이며 金額으로는 2倍(110.5%)가 넘었다. 黑白 TV도 昨年度에 비하여 輸入 臺數가 77.5%가 늘었다.

家庭用 라디오는 53.9% 輸入台數의 增加가 있다. 이 외에도 다른 家庭用電子製品(錄音器, 蓄音器 등) 여러 種目에 걸쳐서 自動車用 라디오만 44%~95.7%의 增加率을 각각 세우고 있다. 즉 今年에 들어와서의 急激한 美國의 電子製品市場의 增加는 關係者들을 매우 놀라게 하고 있다. 이 主要原因은 美國大

衆들의 購買力增大와 消費熱의 高騰에 있다고 識者들은 보고 있다. 實事上 昨年(1971年)에도 家庭用電子製品의 買上은 記錄의이 있으며 80億弗을 超過하였다고 본다.

한편 美國內에서의 生產을 보면 칼라 TV는 現在(1972年 5月 3日)까지는 去年の 同期分에 비하여 143.7%, 蓄電器는 48.2% 비데오테이프系統은 18.7%가 늘고 있다. 그러나 黑白 TV는 6.4%의 削減이 되고 있고 家庭用 라디오도 3.5%, 錄音器는 7.6%의 減少를 보이고 있다. 즉 一般的인 경향은 黑白 TV, 라디오 및 錄音器 등의 比較的廉價(따라서 技術적으로 容易한)인 種目的 美國全體의 市場은 늘고 있으나 美國內生産은 反對로 줄고 있으므로 輸入量이 增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高價인 品目들은 美國企業體들이 生產을 再始作하거나 生產施設을 늘린 것은 거의 없으나 日本企業體들과 合作으로 美國內에 生產工場을 設備함으로써 國內 生產이 增加되고 또 美國外로 輸出이 늘기 始作하고 있다.

2. 巨大한 產業으로 發展하여 가는 電子工業

人間들의 生活이 現代化하여 가고 電子化되어짐에 따라 全世界에 흩어져 있는 각 國家나 民族들의 生活水準이 높아짐에 所謂 家庭用電子製品(우리나라에서는 消費用 또는 家庭用電子製品이라 稱함)의 消費는 끊임 없는 增加를 계속하여 結局에는 우리 人間 社會에서 가장 큰 產業으로 發展할 것이다며 그 需要市場은 莫大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은 美國關係當局에서豫言하고 있는 바이다. 여기서 消費 또는 家庭用電子製品이라는 것은 라디오, 텔레비전, 蓄音機器, 錄音器 등의 우리個人生活에 使用되는 品目을 말하는 것이다.

現在 家庭用電子工業의 始初는 1920年에 美國에서 라디오放送이 開始됨에 따라 라디오 受信機가 大衆에 販賣된 것이다. 2年이 지나간 1922年에는 1臺 50弗의 價格(工場生產價)인 라디오가 拾萬臺 生產 販賣되었으며, 1924年에는 10倍의 增加가 있었다.

世界 第2次 大戰이 勃發한 1941년까지 약 10億臺의 라디오가 美國에서 販賣되었다. (놀란 것은 이 20年間에 販賣되었던 것 이 그후 1968年과 1969年の 단 2年間에 同臺數의 라디오가 팔렸다.) 戰爭中 武器와 軍事에 利用되었던 여러 電子技術은

戰爭完了後 1945年 後半期부터 數年內로 歷史上 처음으로 보는
急激한 特殊產業의 發展을 일으키게 하였다. 所謂電蓄(Hi-Fi)
의 時代와 FM時代의 燦爛한 發展이 있었고, 드디어 텔레비전
時代의 始作이 된 것이다. 텔레비전은 우리 公私의 生活에 큰
變化를 이미 가지고 왔으며 더욱 큰變化를 장차 要求하고 있다.

이 外에 錄音 및 錄畫機器 등의 急速한 發展과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利用度는 나날이 높아지며 이에 따르는 家庭用 電子
市場의 擴張은 無限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3. 漸次 알려지고 있는 韓國電子製品

3, 4年前만하더라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韓國電子製品이 現在 海外에 알려져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一般大衆과는 距離가 멀고 日本이나 美國의 電子企業體들이나 貿易商들에 알리져 있을 뿐이다. 즉 韓國製의 部品을 購買하려고 하며, 또는 廉價인 完製品의 組立(되디오, TV 등)을 韓國에 부탁하는 外國業體들이 急速히 늘어가고 있다.

一般의 外國의 消費者大衆은 購入한 라디오나 TV가 韓國製인지는 모르나 (美國이나 日本의 商社 또는 電子業體의 商標を 實地에 팔고 있으므로) 이러한 段階를 통하여 技術과 商術을 習得하여 將來의 自立을 기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日本의 電子工業도 꼭 같은 길을 밟아온 것이다. 다만 韓國製品의 信用(質과 内容에 있어서)을 維持하는 데는 強力한 政府의 政策이 必要하다. 즉 業者들은 대체로 目前의 利潤에만 눈을 뜨므로 所謂 自由競争을 惡用하는 수가 많다.

따라서 韓國製品全體에 대하여 惡評을 가지고 오게 한다. 日本의 經驗이 여기에 좋은 예이다. 第2次大戰後 日本은 海外市場進出을 위하여 價格의 低廉함에만 置重하고 質과 内容은 保障하지 않았다. 따라서 日本製商品이란 當가지기 쉬운 物品이라는 定義까지 붙어 있었다. 이러한 惡印象을 改善하는데 日本의 政府 및 業者들은 많은 努力を 하여 왔으나 특히 가장 먼저 훌륭한 成果를 올린 것은 電子製品 分野이다. 지금은 日本電子製品의 優秀性(質과 機能에 있어서)은 世界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間에 있어서의 努力, 財力, 信用 및 時間의 損失은 莫大한 것이었다.

이 日本의 經驗이 우리에게는 좋은 教示이며, 같은 過誤를

犯하여서는 안 된다.

4. 強力한 育成方針이 緊要함

이러한 좋은 機會를 잊지 않고 充分히 利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電子工業과 附隨產業의 復興을 기도하려며는 政府로서의 強力한 育成과 進行이 緊要하다.

첫째로 現國內電子企業體의 生產施設을 時急히 擴張하는 것을 도와야 하며 生產品目을 增加시키기 위한 施設 첨가가 時急하다.

둘째로는 韓國製品의 海外販賣路, 即 現地에 있는 有經驗者를 通하여 急速히 늘리는 것을 도와야 한다. 즉 아무리 큰 國內企業體라 해도 그의 生產되는 製品은 國際市場의 感覺을 充分히 反映시키지 못하고 있는 現象이다. 따라서 가장 有効的이며, 빠른 길은 海外(특히 美國)에 居住하는 우리 僑胞 또는 美國商社를 利用하는 것이 最上策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때 그때 變遷하는 海外市場의 流行 즉 어떠한 品種이 가장 큰 市場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떠한 形態 또는 Design이 가장 歡迎받는다는 것은 國내居住者로서는 도저히 理解를 못한다.

세째로는 現在에 있는 國內企業體의一般的な 困難點은 日本에서의 材料購入에 있다. 즉 大量生產輸出을 위한 多量의 材料購入은 日本該當商社들이 이를 抑制한다. 그 理由는 世界市場에 있어서의 韓國業者들의 競爭力を 增強시키지 않으려는 日本業者들의 術策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反對로 日本材料業者들을 抑制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여야 한다. 가장 좋은 方法으로서는 韓國業者들의 材料購入을 일괄 注文하는 것이다. 즉 종괄된 注文量이相當할 것으로 多量의 注文量으로서 日本의 供給業者들을 어느 程度까지 抑制하여 美國 또는 他國에서 購入할 수 있는 승산도 생기게 된다. 즉 購入材料나 部品의 Pull制度成立이 時急하다. (軍事用語로는 Deport System에 該當됨.)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制度의 缺點 外國信用狀開設問題, 通關 및 關稅問題, 送金問題 등이 있으나 上記 세 가지 問題點만 優先解决하여 주는 것이 가장 時急하다고 본다. 이러한 絶好的機會를 맞이하여 政府의 施策과 業體들의 努力으로서 우리나라의 產業 특히 電子工業에 큰 發展을 촉진할 바라며 “소 읊고 外양간 고친다”는 格이 안 되기를 所望한다.

지지하자 10월 유신 참여하자 국민 투표